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9년 2월

선교편지 제 117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과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고향과 같이 익숙한 선교지에 잘 도착했습니다.

지난 11년간 선교지의 무더운 날씨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사실 이번 겨울철 방문을 매우 기대했었습니다. 흰 눈을 본 적도 매우 오래 되었고, 옷 깃을 여미는 추위도 경험해 본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마치 어린 아이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화같은 기대는 미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무참히 사라져 버리고, 일정 내내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준비한 겨울 옷들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제 몸은 무더운 선교지에 완전히 적응이 되어서 겨울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실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는 중에도, 숙소로 돌아 오면 제 아내에게 입버릇처럼 따뜻한 선교지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수 없이 했었습니다. 모처럼 선교지를 떠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아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여하튼 오랜만에 겨울 여행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정다운 선교지에 잘 복귀해서, 이제는 뜨거운 햇볕을 마음껏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도 걱정과 함께 마음과 기도는 늘 선교지에 있었 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로 돌아와 보니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 부지를 구입할 4년전부터 교회 앞 도로가 곧 포장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지역 공무원으로부터 수 없이 들어 왔었는데, 실망스럽게도 포장은 커녕 흙 먼지만 날리고 있었 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놀랍게도 교회 앞 도로가 2차선으로 말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 이후, 주변에서 벌어진 가장 큰 변화입니다. 새로운 도로로 인해서 차량과 이동 인구가 갑자기 급증하여, 과연 이곳이 그 전과 같은 곳인가 할 정도로 바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출입이 그전보다 훨씬 더 용이해져서, 전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늘 그리던 디고스예일교회 주일 예배에 오랜 만에 참석을 해 보니, 새로운 얼굴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성인용 의자가 모자라 조그만 어린이 의자까지 동원할 정도였습니다.


작년말부터 구역을 소규모의 셀 그룹으로 전환해서 성경공부와 전도를 독려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이지만 열매가 보일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장학 사역을 통하여 대학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 왔었는데, 이제 벌써 6년이 지나면서 장학사역 1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여 직장을 갖게 되었을 정도로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학사역을 통하여 성숙한 청년들 중에서 8명이 어린 나이에 '집사'로 임명을 받고, 이제는 몸 된 교회를 셀 그룹 리더로서 앞장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큰 힘을 얻고, 새로운 얼굴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그마한 고등학교에서 학원 사역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 날과 같은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의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장학금 후원자들을 보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4년간 대학 학업뿐만 아니라 신앙으로도 성숙한 청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교 교사와 같은 좋은 직장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집사님'이 되었으니, 그 감격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과 전도에 앞장서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과연 어디까지 펼쳐질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롤 모델과 같이 아름답게 성장한 청년들로 인하여, 현재 장학사역에 속한 61명의 장학생들의 현재와 앞날도 기대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공훈이 이곳 학생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4:13)**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9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아팔라야 고등학교 사역이 5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학교에서 진행했던 학원 사역과 마찬가지로 매주 토요일마다 자원하여 모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정도로 준비하고 기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팔라야 사역에 얼마나 큰 축복을 해 주시는지 많은 현지 교역자들과 스텝들이 동원되어야 할 정도로 저희의 기존 사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셔서, 공립 고등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 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경공부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20여명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디고스 지역의 여러 학교와 좋은 관계를 맺고, 학생들에게 복음으로 다가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학교와 신뢰를 쌓는 많은 노력이 필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 팔라야 고등학교는 그런 지루한 과정이 필요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신앙으 로 성숙한 학교장을 처음 만난 날부터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매우 드물게 학교 와 교회가 힘을 합하여 학생들을 복음화 하는데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팔라야 지역은 디고스 내의 해변을 따라 형성된 지역입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푸른 바다에 하얀 백사 장이 있는 그러한 해변이 아니라, 그야말로 방치된 해변으로서 디고스 지역 내에서도 생활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불량배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주변 사람들과 아팔라야 지역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면, 위험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항상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지역에 500여명의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인 교실 마저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학교 에 저희들을 보내 주시고, 예비된 학교장을 만나게 해 주셔서 아팔라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장과 함께 학원 복음화를 위하여 논의하 는 중에 전교생을 디고스 예일 교회로 초대하여 일 일 신앙 수련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립 고등학교로서 특정 종교에 참석 시키기 위하여 전교생을 학교 밖으로 이동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현재 전교생의 약 20% 정도가 모슬렘권 학생들로 이들에게 강제적 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 참석 가능한 인원은 약 400명 정도를 예상하게 되 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한번에 약 40명씩 10회에

걸쳐 주일이 아닌 주중에 교회로 초대하는, 디고스 예일 교회로서도 결코 쉽지 않은 전도 집회를 준비하기 시 작했습니다. 학생들을 아침 7시30분에 학교에서 교회까지 지프니로 이동시키고, 학교 시간에 맞추어 오후 4 시 30분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점심 식사는 물론 이곳의 관례대로 오전, 오후 두번의 간식을 제공하 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결코 망설일 수가 없어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철저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첫 인상을 주기 위하여 청소부터 시 작해서, 시간별 진행할 프로그램을 찬양은 물론이고, 현지 언어로 된 '예수' 영화도 상영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형태로 다양하게 복음을 제시하여, 마침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 했습니다.

마침내 3주에 걸쳐서 진행할 일일 신앙 수련회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의 현지 사역자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아침 일찍 나와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지프니 를 타고 오는 아팔라야 고등학교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도착 시간에 맞추어 도열을 했습니다.

예정한 시간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밝고, 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한명, 한명 손을 잡고 반갑게 맞이하고, 하루동안 편안하게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을 포함하여 교회 내부를 안내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한 순서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서는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많은 학생들을 저희에게 맡겨 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아팔라야 지역은 복음을 받아들인 학생들이 신앙으로 성장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놀랍게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 합니다. 아팔라야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역과 아팔라야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아팔라야 사역을 통하여 그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바카카 교회의 부흥과 아팔라야 교회 건축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47 Davis Avenue #2L / White Plains, NY 10605

